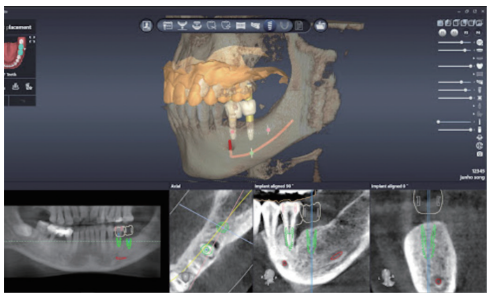


그림 8 국산 가이드 소프트웨어 Dentiq guide. 부담없이 접근 할 수 있는 가격이고 쿠폰처럼 가이드 출력시 마다 비용을 과금하는 방식이다. 아직은 보철 시스템이 없어서 가이드만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점점 보철물들도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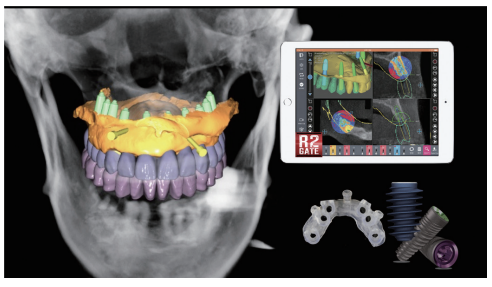


그림 9 메가젠의 R2GATE surgical guide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디지털센터와 치과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3차원적으로 가이드 정보를 공유하는 양방향 시스템이 장착되어 술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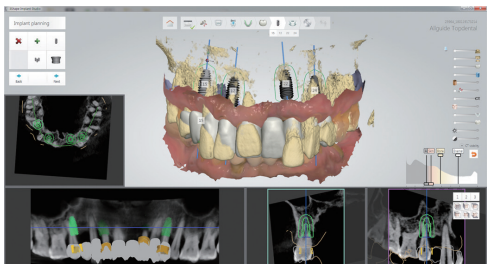


그림 10 대표적인 가이드 소프트웨어인 3shape 임플란트 스튜디오. 가장 많은 임플란트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나 이 프로그램은 가격이 비싸서 쉽게 사용하기는 부담이 간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3차원적 디자인에서 한계를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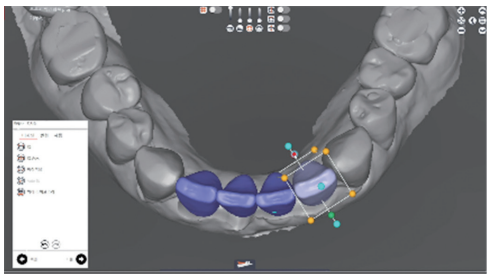


그림 11 메가젠의 R2CAD소프트웨어. 치과용 chair side용으로 스캐너와 같이 이용하면 당일날 환자 스캔 후 상담이 가능하고 치과에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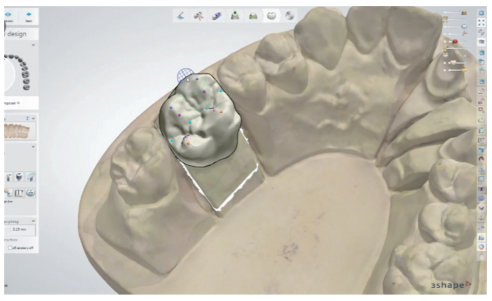


그림 12 3shape의 보철 소프트웨어 dental designer. 기공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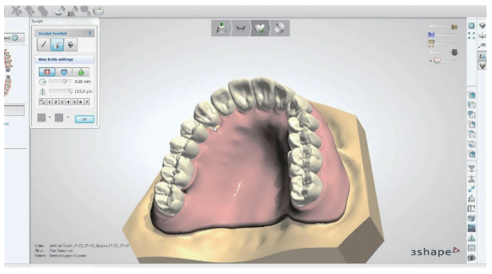


그림 13 총의치를 디자인 하고 있는 화면. 도치의 라이브러리가 탑재되어 쉽게 디자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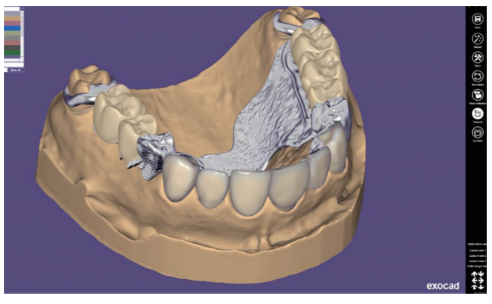


그림 14 exocad를 이용한 RPD 제작 과정. 이제는 의치도 디지털을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림 15 3shape의 교정 소프트웨어 브라켓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indirect bonding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산 브라켓의 라이브러리는 들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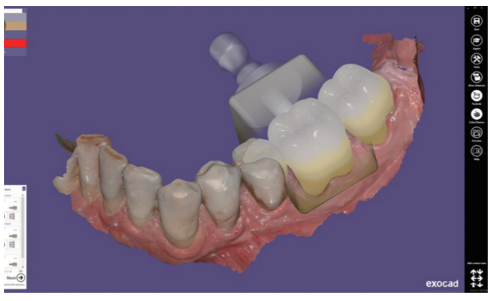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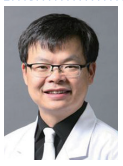


그림 16 구강스캐너의 스캔파일과 호환이 되면 컬러 구현이 가능하고 shade블럭과 함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정리하며...

CAD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한다. 치과 내에서 chair side시스템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목적에 맞는 CAD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치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가격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니 다양하게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염문섭 원장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고려대의대 및 한림대의대 외래교수
· ICOI Korea 부회장
· 대한심미치과학회 부회장
· 덴트포토 설립자
· 현)서울탑치과의원 원장